

鮑照의 陶淵明 수용
- <學陶彭澤體> 시를 중심으로 -

宋 永 程*

<目次>

I. 緒言	1. <學陶彭澤體>시 분석
II. 南朝의 陶淵明 수용	2. 陶詩 受容史上的 의의
III. 鮑照의 <學陶彭澤體>시	IV. 結語

I. 緒言

郭麗平은 劉宋 모의시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로 阮籍(210~263)과 陶淵明(365~427)의 新詩體에 대한 모의가 나타난 점을 지적하면서, 그 예로 鮑照(414~466)의 <擬阮公夜中不能寐>와 <學陶彭澤體> 및 王素(410~463)의 <學阮步兵詩> 세 수를 제시하였다.¹⁾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陶淵明 시에 대한 모의가 劉宋 시대를 통틀어 포조의 <學陶彭澤體> 한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陶淵明이 생존하였던 東晉 시기는 玄言詩가 문단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서, 주로 “자신의 농경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촌에서의 은일생활, 농경생활 등을 題材로 삼아, 일상생활의 언어로 자신의 진정한 정감을 담아낸”²⁾ 陶淵明의 시는 당시

* 계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

1) 郭麗平, <劉宋時期的模擬詩創作與文學接受>, 《泉州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 28:5, 2010, 62쪽.

2) 崔雄赫, <陶淵明 田園詩 研究>, 韓國外大 博士學位論文, 1991, 19쪽.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적이 《詩品》에서 <上品>에列入된 반면, 도연명은 《文心雕龍》과 《詩品·序》에서는 舉名조차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품》의 正文에서는 포조처럼 겨우 <중품>에列入되어 있을 뿐이었다. 淸의 王士禛(1634~1711)은 《漁洋詩話》에서 《시품》의 品第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몇몇 시인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여기서 그는 중품의 陶淵明을 劉琨(271~318), 鮑照 등과 함께 당연히 上品에 넣어야 한다고 하여,³⁾ 鍾嶸의 품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남조의 도연명에 대한 일반적 수용 양상을 살핀 후, 포조 <學陶彭澤體>시의 도연명 시 수용 양상과 도연명 시 受容史에서의 의의를 고찰하기로 한다.

II. 南朝의 陶淵明 수용

남북조 시대에 있어 도연명 또는 그의 문학은 서언에서도 짧게 언급한 것처럼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평가되지도 못하였다. 그 이유는 鍾嶸의 도연명 시에 대한 評語를 통하여도 알 수 있다.

그 근원은 應璩에서 나왔고, 또 左思의 風力도 지니고 있다. 文體가 간결하고 차분하여 장황한 말이 거의 없다. 독실한 생각이 진솔하고 古雅하며, 文辭의 흥치가 완곡하면서도 함당하다. 그의 글을 볼 때마다 그의 인덕을 생각하게 된다. 세인들은 그의 질박하고 소탈함을 嗟歎한다. “즐겁게 이야기하며 봄 술 따르고”(<讀山海經(1)>)와 “날 저물어 하늘엔 구름도 없고(<擬古(1)>) 같은 것은 雅麗하고 優美하며 맑고 화사한데 어찌 농가의 일상어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高錕의 은일시인의 宗主이다.⁴⁾

3) 王士禛, 《漁洋詩話·卷下·七》(王夫之等撰, 丁福保編, 《淸詩話》, 明倫出版社, 1971, 203쪽): “鍾嶸《詩品》, 余少時深喜之, 今始知其躐謬不少. …… 中品之劉琨·郭璞·陶潛·鮑照·謝朓·江淹, 下品之魏武, 宜在上品.”

종영은 도연명 시의 기본 특징을 ‘文體의 省靜’과 ‘篤意의 眞古’, ‘辭興의 婉愜’으로 지적한 후, ‘質直’이라는 세인들의 평가를 인용하여 시풍을 개괄하였다. 도연명 시의 이러한 특징은 서진 이후 차츰 형식화하여 ‘華靡’를 추구하던 일반적 조류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연명은 당시 문단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시는 ‘田家語’라고까지 폄훼되었던 듯하다. 그래서 종영은 오히려 일부 작품은 ‘風華清靡’한 면이 있어 ‘전가어’라고 평하는 것은 온당치 못함을 지적하게 되었던 것이다.

도연명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唐代에 들어와서이다. 특히 盛唐 시기 자연파 시인의 대표인 王維(701~761)와 孟浩然(689~740)은 물론 낭만주의 시인 李白(701~762)과 사회시인 杜甫(712~770)와 中唐의 白居易(772~846) 등이 모두 도연명의 시문을 극찬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연명을 존중한 문인은 북송의 蘇軾(1037~1101)이다. 그는 동생 蘇轍(1039~1112)에게 보낸 글에서, “나는 시인들에 대해 그다지 좋아함이 없지만 유독 도연명의 시만은 좋아한다. 도연명은 시를 그다지 많이 짓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는 질박하면서도 사실은 綺麗하고 여위면서도 사실은 살지다. 曹植(192~232)과 劉楨(?~217), 鮑照와 謝靈運(385~433), 이백과 두보 등이 모두 미치지 못한다. 내가 전후하여 그의 시를 和作한 것이 모두 109수인데, 原詩의 의미를 드러낸 점에 있어서는 도연명에게 그다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한다.”⁵⁾고 하였다. 이후 도연명의 작품은 많은 시인들의 학습 대상이 되었으니, 그의 시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처음에는 흠시되다가 나중에는 극도로 追崇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

4) 鍾嶸, 《詩品》 卷中 <宋徵士陶潛>: “其源出於應璩, 又協左思風力. 文體省靜, 殆無長語. 篤意眞古, 辭興婉愜. 每觀其文, 想其人德. 世歎其質直. 至如‘歡言酌春酒’, ‘日暮天無雲’, 風華清靡, 豈直爲田家語邪! 古今隱逸詩人之宗也.”

5) 蘇軾, <與子由書>: “吾於詩人, 無所甚好, 獨好淵明之詩. 淵明作詩不多, 然其詩質而實綺, 癯而實腴. 自曹·劉·鮑·謝·李·杜諸人皆莫及也. 吾前後和其詩凡一百有九篇, 至其得意, 自謂不甚愧淵明.”(蘇軾, <和陶淵明詩引>, 《施註蘇詩》, 臺灣商務印書館, 권41, 1b-2a쪽에 인용)

처음에 흠시되었던 시기가 바로 남북조 시대인데 이 시기에 그나마 도연명 또는 그의 문학을 평가하거나 수용한 인물로는, 현존 자료상으로는 劉宋의 顏延之(384~456)와 鮑照, 宋齊 시기의 沈約(441~513)과 江淹(444~505), 齊梁 시기의 蕭統(501~531)과 鍾嶸(?~552)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안연지와 심약은 주로 인품 면에서 도연명을 받아들인 반면, 포조와 강엄 및 소통과 종영은 그의 문학에 대해 모의를 하거나 수집하고 평가를 하였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鍾嶸과 다음 장에서 다룰 鮑照를 제외한 다른 문인들의 도연명 수용 양상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顏延之는 도연명보다 약 스무 살 가량 젊지만 매우 절친한 교우관계를 유지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도연명 사후 <陶徵士誄>를 지어 그를 조문하였다. ‘徵士’란 조정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은거한 은사를 가리키니, 안연지의 이 글은 종영이 도연명을 ‘古今隱逸詩人之宗’이라고 평가한 것의 선구가 된다. 안연지는 이 글의 <序>에서 은거로 유명한 고대 인물 즉, 巢父와 伯成子高의 ‘抗行’, 伯夷와 商山四皓의 ‘峻節’을 언급한 후, 晉의 徵士인 潯陽의 도연명이 南嶽의 ‘幽居者’임을 선언하였다. 이어서 도연명의 간략한 사적을 간추리면서 “마음은 異書 읽기를 좋아하고 성품은 酒德을 즐기며, 煩亂하고 促急함을 버리고 簡約하고 安閑함을 배양한”⁷⁾ 인품을 찬양하였다. 正文에서도 ‘簡潔’, ‘好古’, ‘獨善’, ‘勤儉’ 등의 표현으로 도연명의 인품을 찬양하였다. 반면 그의 시문에 대한 평가는 <序>에서 “文取指達”이라고 한 것이 전부이다. 이것은 도연명의 문장이 “주체에 부합하여 드러나는 것만 취할 뿐 浮華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⁸⁾는 뜻이니, 절친한 벗으로서 인품에 대해서는 절찬을 한 안연지도 그 시문에 대해서는 그다지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6) 이치수 역주, <오희이 해설>, 《도연명 전집》, 문학과지성사, 2005, 394쪽.

7) 顏延之, <陶徵士誄·序>(五臣并李善注, 《文選》, 正文社, 1983, 권57): “心好異書, 性樂酒德; 簡棄煩禮, 就成省曠.”(‘煩禮’는 善本에는 ‘煩促’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더 낫다)

8) 같은 글, 劉良 注: “文章但取指適爲達, 不以浮華爲務也.”

沈約은 《宋書》에서 도연명을 <隱逸傳>에 넣어 생애를 정리하였으니, 正史에서 다루진 공식적인 도연명의 전기는 이것이 최초이다. 이 전기에는 도연명의 家世와 생애, 인품과 志向, 出仕와 은일 등이 비교적 상세히 다루어져 있는데, 이는 후인들의 전기 작성의 근거가 되었다. 심약은 “증조부(陶侃)가 晉代의 宰輔(大司馬)였기에 다음 왕조에서 벼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며, …… 지은 문장은 모두 연월을 밝혔는데, 義熙(405~418, 東晉 安帝의 연호) 이전에는 晉代의 연호를 적었지만, 永初(420~422, 宋 武帝의 연호)부터는 甲子만을 말했을 뿐이다.”⁹⁾라고 하여, ‘不事二君’하려는 도연명의 인품을 부각하였다. 이 전기에서 심약은 <五柳先生傳>, <歸去來兮辭>, <命子詩> 등의 시문을 인용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모두 인품의 고상함을 부각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의 시문의 가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漢代 이후 시문의 발전 과정을 개괄한 심약의 文論인 《宋書》의 <謝靈運傳論>에서도, 屈原(339?~278?BC), 宋玉(298~222BC), 賈誼(200~168BC), 司馬相如(179~118BC), 王褒(생졸년 미상), 劉向(77~6BC), 揚雄(53BC~AD18), 班固(32~92), ‘三曹’, 王粲(177~217), 潘岳(247?~330), 陸機(261~303), 殷仲文(?~407), 謝混(?~412), 顏延之(384~456), 謝靈運(385~433) 등의 문인을 평가하면서도 陶淵明은 거명조차 하지 않았음도 심약의 이러한 태도를 증명한다.¹⁰⁾

江淹은 漢代에서 劉宋에 이르는 약 5백여 년 간, <古詩>와 李陵(?~74BC), 班婕妤(48BC~AD2)에서 鮑照, 湯惠休(생졸년 미상)에 이르기까지 30명의 오언시 대표작을 모의한 <雜體詩> 30수를 지었는데, 여기에는 <陶

9) 《宋書》, 권93, <隱逸傳·陶潛>, 2288-2289쪽: “自以曾祖晉世宰輔, 恥復屈身後代. ……所著文章, 皆題其年月, 義熙以前, 則書晉氏年號, 自永初以來, 唯云甲子而已.”

10) 梁의 蕭子顯(498?~537)도 《南齊書》의 <文學傳論>에서 작가를 간단히 품평하면서 도연명은 거명조차 하지 않았으며, 당시의 문학 경향도 謝靈運, 傅咸(239~294)과 應璩(190~252), 鮑照에 뿌리를 둔 세 가지 ‘體’로 귀납하였을 뿐이다. 이것 역시 齊梁 시기의 일반적 조류가 도연명의 문학과는 궤를 달리 하였으며, 당시 문인들에게 도연명은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음을 말해준다.

徵君田居>가 들어 있다.

동쪽 편 언덕에 곡식 심으니	種苗在東臯
싹은 자라 밭이랑에 가득하다네.	苗生滿阡陌
호미 메고 밭매기 싫증나지만	雖有荷鋤倦
날 저물면 수레 타고 돌아오는데	日暮巾柴車
길 어둡고 해는 이미 저물었다네.	路闇光已夕
불빛 보고 집으로 돌아가노니	歸人望煙火
어린 아이 처마 밑서 기다린다네.	稚子候檐隙
문노니 이 또한 무엇 함인가	問君亦何爲
한 평생 수고로움 있을 테지만,	百年會有役
바라기는 뽕과 삼 잘 자라나서	但願桑麻成
양잠 달에 길쌈을 할 수 있기를.	蠶月得紡績
본디부터 내 마음 이와 같으니	素心正如此
길 열고 좋은 친구 기다린다오.	開逕望三益

이 시는 도연명의 <歸去來兮辭>, <歸園田居>를 비롯한 여러 시문에서 전고를 취하여 ‘田居’ 생활에 安分知足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도연명의 시풍을 닮은 점은 宋 嚴羽(1200 전후)의 “옛 시를 모의하는 것은 강엄이 가장 뛰어났으니 도연명을 본뜬 것은 도연명 같다.”¹¹⁾라는 평에 부합한다.

蕭統은 <陶淵明傳>을 지어 도연명의 생애를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文選>에도 그의 시문을 선록하였다. <도연명전>에서도 도연명을 隱士로 규정하였지만, 그의 인품과 성격 등에 대해서는 ‘任眞自得’이라는 말로 자연에 맡겨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보다 구상화하였는데, 이는 도연명의 인품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부합하는 평어이다. 또 <陶淵明集序>에서는 “그의 문장은 남과 달라 시문의 문체가 정묘하고 빼어나며 엷매이지 않고 밝게 빛나니 여러 무리들을 홀로 뛰어넘었다.”¹²⁾라고 하여 도연명의 시문을 매우

11) 嚴羽, <滄浪詩話·詩評>(何文煥 訂, <歷代詩話>, 藝文印書館, 1974, 450下a 쪽): “擬古惟江文通最長, 擬淵明似淵明.”

12) 蕭統, <陶淵明集序>(陶澍 注, <陶靖節集注>, 世界書局, 1974, <諸本序錄>, 4

높게 평가하였다.

남조 시대에 강엄과 소통처럼 도연명의 문학에 대한 모의나 평가 등을 통해 인정과 찬양을 한 문인들도 있기는 하지만, 상술한 것처럼 본격적인 문학이론서인 劉勰의 《文心雕龍》과 비평서인 鍾嶸의 《詩品》의 <序>에 서는 언급이 전무할 정도로 齊梁 시기에는 도연명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여전히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III. 鮑照의 <學陶彭澤體>시

1. <學陶彭澤體>시 분석

먼저 포조의 <學陶彭澤體>시의 전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긴 시름은 삶의 뜻이 전혀 아니고	長憂非生意
짧은 바람 많아야 할 필요가 없다.	短願不須多
술그릇에 가득히 술이 차 있고	但使尊酒滿
오랜 친구 자주자주 찾으면 된다.	朋舊數相過
가을바람 불어오는 칠팔월에는	秋風七八月
맑은 이슬 비단 옷을 촉촉이 한다.	清露潤綺羅
슬을 당겨 문을 보고 가만 앉아서	提瑟當戶坐
한숨 쉬며 은하수를 바라다본다.	歎息望天河
이를 지켜 방해받지 않기만 하면	保此無傾動
어찌 다시 풍파에 머물 것인가.	寧復滯風波

이 시는 포조의 <學劉公幹體> 다섯 수 중 네 수가 각각 劉楨의 특정 작품 한 수의 시어와 意境 등을 본뜬 것¹³⁾과는 달리, 도연명의 특정 작품

쪽): “其文章不群, 辭彩精拔; 跌宕昭彰, 獨超衆類.”

13) 宋永程, <鮑照의 <學劉公幹體>시>, 《中國語文學》59, 2012, 5-26쪽 참조.

한 수만을 본뜬 것이 아니라 여러 작품에서 의경을 취하였다. ‘학습’의 대상이 된 것은 모두 도연명이 전원의 애환과 고락을 체험하면서 느낀 閑情逸趣와 인생의 ‘眞意’를 노래한 세 수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2구는 <九日閒居>의 “인생은 짧은데도 생각 늘 많아, 이 사람들 오래살기 즐겨 바란다(世短意常多, 斯人樂久生)”, 제3,4구는 <移居> 제2수의 “대문을 지나다가 서로 불러서, 술 있으면 술잔을 기울인다네(過門更相呼, 有酒斟酌之)”, 제5-8구는 <擬古> 제7수의 “가인은 맑은 밤을 좋아하여서, 날 새도록 술 마시며 노래하누나. 노래가 끝이 나면 기나긴 탄식, 이로 인해 이는 감회 많기도 하다(佳人美清夜, 達曙酣且歌, 歌竟長歎息, 持此感人多)”를 각각 변용하였다.

<九日閒居>는, 중국인들이 가족과 함께 登高하여 菊花酒를 마시는 명절인 ‘음력 9월 9일[九日 즉 重陽節]’에, 시인은 ‘홀로 지내며[閒居]’ 술을 마시고자 해도 술이 없어 ‘重九의 꽃[九華, 즉 국화]’만 부질없이 먹으며 일어나는 회포를 읊은 것이다.¹⁴⁾

인생은 짧은데도 생각 늘 많아	世短意恆多
이 사람들 오래 살기 즐겨 바란다.	斯人樂久生
해와 달 계절 따라 찾아 이르니	日月依辰至
은 세속 그 이름[重九]을 좋아들 한다.	舉俗愛其名
이슬 차고 훈풍은 자취 감추며	露淒暄風息
공기 맑고 하늘은 청명도 하다.	氣澈天象明
떠나가는 제비는 자취도 없고	往燕無遺影
날아오는 기러기 긴 울음 운다.	來雁有餘聲
술은 온갖 근심 없앨 수 있고	酒能祛百慮
국화는 늙는 나이 막아주지만,	菊爲制顏齡
어찌하여 초가집의 가난한 선비	如何蓬廬士
흘러가는 시간만 공연히 보나.	空視時運傾

14) 陶淵明, <九日閒居·序>: “余閒居, 愛重九之名, 秋菊盈園, 而持醪靡由, 空服九華, 寄懷於言.”(《陶靖節集注》, 권2, 15쪽)

먼지 앉은 술잔은 빈 술독 부끄럽고	塵爵恥虛罍
차가운 가을꽃은 부질없이 피었다.	寒華徒自榮
옷깃 여미고 혼자 노래 부르니	歛襟獨閒謠
아득히 깊은 정이 피어오른다.	緬焉起深情
은거에도 즐거움이 본디 많거늘	棲遲固多娛
오래도록 머문다고 이롭 없으랴. ¹⁵⁾	淹留豈無成

이 시는 제1-4구의 제목 ‘九日’에 대한 설명, 제5-8구의 敍景, 제9-14구의 ‘술’과 ‘국화’를 차용한 抒情, 제15-18구의 ‘閒居’에 대한 부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¹⁶⁾ 키워드는 ‘意多[百慮]’와 ‘久生[頽齡]’, ‘酒’와 ‘菊’이다. 짧은 한 평생 수없이 명멸하는 온갖 ‘생각’들을 잠재우는 데에는 ‘술’이 제일이고 ‘늡늡’을 막아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는 ‘국화’가 으뜸인데, 지금 도연명에게는 ‘술’은 없고 국화만 있다. 둘은 하나로 어우러져 ‘국화주’가 되거나 적어도 술에 국화꽃잎이라도 띄워 마셔야, 시름을 잊고 延年益壽하는 본래의 효용도 배증하고 중앙절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지금 도연명에게는 술이 없기에 국화꽃은 ‘부질없이(徒)’ 피어 있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술을 마시는 대신에 옷깃을 가다듬고 단정히 앉아서 ‘혼자’ 노래하는 것으로 ‘온갖 근심’을 가라앉히려 하고 한다.

<移居>는 모두 두 수로, 도연명 44세 무렵인 408년 潯陽 上京의 집이 화재를 당하자 잠시 船上 생활을 하다가 2년 후인 410년에 潯陽 南村으로 이사한 후 지은 것인데, 제1수¹⁷⁾는 전원의 품위 있는 문화생활을 노래한 시로 거주지를 남촌으로 선택하게 된 배경과 그 곳 생활의 일단을 보여준다.¹⁸⁾ 포조의 학습 대상인 제2수를 보자.

15) 번역은 이치수, 앞의 책, 64쪽의 번역을 참고하되 운율을 맞추기 위해 다소 수정함.

16) 王士禎 選, 方東樹 評, 《方東樹評古詩選》, 聯經出版社, 1975, 120쪽: “起四句解九日題義, 典而新警. ‘露漙’四句寫景, 以下借酒菊引入情, 收四句敷衍閑居.”

17) “昔欲居南村, 非爲卜其宅. 閒多素心人, 樂與數晨夕. 懷此頗有年, 今日從茲役. 敝廬何必廣, 取足蔽牀席. 隣曲時時來, 抗言談在昔. 奇文共欣賞, 疑義相與析.” (《陶靖節集注》, 권2, 23쪽)

봄가을엔 좋은 날이 많기도 하여	春秋多佳日
산에 올라 새 시를 읊조린다네.	登高賦新詩
대문을 지나다가 서로 불러서	過門更相呼
술 있으면 술잔을 기울인다네.	有酒斟酌之
농사철엔 제각각 돌아가지만	農務各自歸
한가할 땐 문득 서로 그리워하네.	閒暇輒相思
그리우면 옷 걸치고 찾아가서는	相思則披衣
웃음 짓는 이야기에 지치지 않네.	言笑無厭時
이런 이치 어찌 아니 훌륭하겠나	此理將不勝
이런 삶을 가볍게 버리지 마세.	無爲忽去茲
의식 문제 모름지기 챙겨야지만	衣食當須紀
열심히 경작하면 속지 않으리. ¹⁹⁾	力耕不吾欺

이사한 후의 전원생활의 실상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렸다. 아무런 가식도 없이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겹게 그려져 있다. 체면 차릴 것도 없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생활 리듬이 전혀 깨어지지도 않는, 자연에 어울려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자연인들의 생활 모습이 그려져 있다.²⁰⁾

<擬古> 아홉 수는 “세상 사람들이 신의를 저버리고 명리를 추구하는 데 대한 개탄과, 그들과 영합하지 않고 자신의 절조를 지키겠다는 신념, 쫓나라가 망하고 宋으로 朝代가 바뀐 것에 대한 감개 등을 나타낸”²¹⁾ 것이다. 포조가 학습의 대상으로 삼은 제7수를 보자.

해 저문 하늘엔 구름도 없고	日暮天無雲
봄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누나.	春風扇微和
가인은 맑은 밤을 좋아하여서	佳人美清夜

18) 팽철호 역해, 《도연명 시선》,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2, 34쪽.

19) 번역은 같은 책, 36쪽의 번역을 참고하되 운율을 맞추기 위해 다소 수정함.

20) 같은 책, 38쪽.

21) 이치수, 앞의 책, 201쪽, 각주(해제).

날 새도룩 술 마시고 노래하누나.	達曙酣且歌
노래가 끝이 나면 기나긴 탄식	歌竟長歎息
이로 인해 이는 감회 많기도 하다.	持此感人多
구름 새로 달빛은 휘영청 밝고	皎皎雲間月
잎 사이로 꽃들이 곱게 피었다.	灼灼葉中華
어찌 한때 아름다움 없으라미는	豈無一時好
오래가지 못하니 어이할거나. ²²⁾	不久當如何

이 작품에는 쾌청한 하늘과 화창한 바람, 밝은 달과 고운 꽃이 어우러지는 봄날 저녁을 술과 노래로 한가로이 즐기는 여유로움 속에 쉬 사라지는 봄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나 있다.

포조의 <학도팽택체>시는, 제1,2구에서 도연명의 <구일한거>시에서 키워드를 ‘긴 시름(長憂)’과 ‘짧은 바람(短願)’으로 치환하고 그 속에 도연명시의 태의를 그대로 함축하여, 짧은 한 평생 동안 오래 살고자 하며 온갖 시름을 안고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바로 도연명이 추구한 曠達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두 구는 <이거>시의 제2수에서 묘사된 전원생활의 모습 중, 대문을 지나다가 서로 불러 탁주잔을 기울이는 광경을 그린 제3,4구를,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대표적 장면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도연명 시에 매우 빈번히 등장하는 飲酒의 모습이다. 다음 네 구는 <의고>시 제7수에서 계절은 가을로 바꾸되 意境은 그대로 살려 제3-6구를 변용하여, 밤새도룩 술과 노래로 한가로이 지내는 정경을 그렸다. 이것이 바로 술과 노래로 시름을 삭히며 자연에 맡겨 자연스럽게 살아가려는 도연명의 恬靜의 태도이다. 말미에서는 자연에 맡겨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영위될 수만 있다면 굳이 세속 ‘風波’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다. 따라서 포조가 본 ‘陶彭澤體’의 핵심 키워드는 ‘曠達’과 ‘飲酒’와 ‘恬靜’이라고 할 수 있다.²³⁾

22) 번역은 같은 책, 208쪽의 번역을 참고하되 운율을 맞추기 위해 다소 수정함.
 23) 劉文中은 포조가 도연명 시에서 학습한 것을 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劉文中, <劉宋時期的陶淵明>, 《哈爾濱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4:3, 2002,

포조는 사회생활에서 겪은 갈등과 좌절, 모함과 차별대우 등으로 인하여, 사직하고 자연으로 귀의하고자 하는 내심을 피력한 작품을 적잖이 남겼다. <擬行路難> 제6수에서는 “두어라 벼슬일랑 버리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쉬어나 보자(棄置罷官去, 還家自休息)”라고 그러한 심정을 직설적으로 피력하였다. 이는 도연명이 <歸去來兮辭>에서 “돌아가자꾸나, 전원이 황무지가 되려는데 어찌 안 돌아가리(歸去來兮, 田園將蕪胡不歸?)”라고 한 것과 같은 심정이다. <학도팽택체>시 末句의 ‘風波’라는 시어에도 세속의 온갖 세태들이 함축되어 있으며, 이 구에는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포조 시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무상감의 피력과 이를 술로 풀고자 하는 점 등도 도연명의 태도와 상사점이 있다.²⁴⁾

2. 陶詩 受容史上의 의의

포조의 <학도팽택체>가 중국 시사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도연명 시의 가치를 가장 먼저 인식하였다는 점과 그의 시를 ‘陶彭澤體’로 명명하여 도연명을 ‘一家’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있다. 제2장에서 살핀 것처럼 남조에서 포조의 시를 모의하거나 긍정적 평가를 한 문인으로는 宋齊 연간의 강엄과 齊梁 연간의 소통이 처음인데, 이들은 모두 포조보다 후대의 인물들이다.

포조보다 앞서 도연명의 시를 모의 대상으로 삼은 인물이 있다. 동진 말 유송 초에 도연명과 같은 시대를 산 范泰(355~428)가 그 사람이다. 그는 <九月九日>²⁵⁾에서

118쪽).

24) 포조가 도연명을 모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와 다른 모의 양상 등은, 宋永程 <鮑照의 前代 文人詩 受容>, 《中國學誌》 8, 1993, 24-29쪽 및 <鮑照詩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125-128쪽 참조.

25) 이 시는 逯欽立的 《先秦漢魏晉南北朝詩》의 <全宋詩>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丁福保의 《全漢三國晉南北朝詩》에는 없다.

거센 바람 숲 언덕에 매섭게 불고	勁風肅林阿
기러기는 계절에 놀라서 우네.	鳴雁驚時候
울의 국화 차가운 떨기 빛나고	籬菊熙寒叢
땃가지는 무성함 바꾸지 않네.	竹枝不改茂

라고 하여, 국화를 ‘籬菊’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도연명의 <飲酒> 제5수의 “採菊東籬下”에서 표현을 빌린 것이고, 중앙절과 국화를 연결한 것도 도연명의 <九日閒居>시를 변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어의 모의에 불과하다. 이러한 전고 인용은 포조의 경우에는 20여 수의 시에 30구 정도가 된다.²⁶⁾ 뿐만 아니라 포조에게는 무상감과 죽음의 문제를 술로 해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시가 많으며, 구어적 표현과 수사의문, 대화체 등을 빈번히 사용하는 등 수사 면에서도 도연명의 영향을 받은 점이 분명한데, 孫康宜는 이런 면에서 포조가 도연명을 선구자로 우러러본 최초의 시인이라고 한 바 있다.²⁷⁾ 더구나 <학도팽택체>는 제목에서 도연명을 학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의 시를 하나의 ‘體’로 인정함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도연명의 시를 모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학도팽택체’는 포조보다 먼저 지었던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은 바로 義興(지금의 江蘇省 宜興市)太守였던 王僧達(423~458)이다. 그것은 포조의 시에 ‘奉和王義興(삼가 의흥태수 왕승달에게 唱和하여)’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왕승달이 먼저 ‘학도팽택체’를 짓고 포조가 이에 唱和하여 이 작품을 지었음을 말해 준다. 동진의 대신 王導(276~339)의 5세손으로 臨川王 劉義慶(403~444)의 사위 이면서 문학적 재능이 있었던²⁸⁾ 왕승달은, 임천왕의 侍郎으로서 주군으로부터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았던 포조와도, 문학을 사랑한 제후 유의경과

26) 전고의 예는 송영정, <鮑照의 前代 文人詩 受容>, 28-29쪽 참조.
 27) Kang-i Sun Chang, *Six Dynasties Poet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103-105쪽.
 28) 《宋書》, 권75, <王僧達傳>, 1951쪽: “小好學, 善屬文.”

문학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교유가 남달리 두터웠을 뿐만 아니라唱和한 시문도 상당히 많다.²⁹⁾ 왕승달이 의흥태수에 재임한 것은 元嘉 29년(452) 봄부터 이듬해 劉劭가 난을 일으키고 孝武帝가 진압하여 즉위할 때까지이다.³⁰⁾ 따라서 포조가 <學陶彭澤體>를 지은 것 역시 이 기간, 즉 452년 봄에서 453년 여름 사이이다.

그러나 왕승달의 작품은 현재 전해지지 않으니 현존 작품으로 보면 포조를 ‘學陶’의 최초 인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포조의 <학도팽택체>가, 도연명의 시를 하나의 ‘體’로 인식하여 ‘학습’함으로써 후래의 ‘擬陶’나 ‘學陶’, ‘和陶’의 기풍을 연 최초의 작품이라는 의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포조가 본 ‘陶彭澤體’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 것인가?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포조는 <學陶彭澤體>에서 ‘曠達’, ‘飲酒’, ‘恬靜’을 ‘陶彭澤體’의 특징으로 보아 ‘학습’하려 하였다. 이 세 요소는 확실히 도연명시의 대표적 풍격 또는 소재이다. 邊利豐은 그의 논문 <玄而不玄——論陶淵明詩歌的文體特徵>에서, 포조의 <학도팽택체>가 完整的 學陶詩로서는 역사상 가장 이른 작품으로서 중국문학사상 和陶와 擬陶의 기풍을 크게 일으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 점에도 의의가 있지만, 도연명의 시를 ‘陶彭澤體’라고 명명하여 그것을 일종의 ‘新’문체로 표명한 점에 더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을 논문의 출발점으로 하여,³¹⁾ 도연명 시의 특성을 찾으려고 하였

29) <送別王宣城>, <和王義興七夕>, <學陶彭澤體>, <和王護軍秋夕> 등은 제목에서 왕승달 시에 창화한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付希亮과 王玉嵐은 《宋書》와 《南史》의 <王僧達傳>의 기록과 포조의 시문을 근거로, <詠雙燕>, <代雉朝飛>, <代空城雀> 등 시 세 수와 상소문 <謝永安令解禁止表>도 왕승달과 관련이 있는 글로 보았다(付希亮·王玉嵐, <錢仲聯《鮑照年譜》中存在的幾個問題>, 《保定師專學報》2000:1, 60쪽).

30) 丁福林, <鮑照交遊考略(續)>, 《鎮江師專學報(社會科學版)》1985:1, 12쪽. 文帝의 태자 劉劭가 난을 일으켜 부왕을 시해하고 스스로 제위에 오른 것은 453년 2월이고, 문제의 셋째 아들 武陵王 劉駿(孝武帝)이 新亭에서 제위에 오른 것은 동년 4월이며 建康을 탈환하고 유소를 살해한 것은 5월이다(《宋書》권6, <孝武帝本紀>, 110-111쪽).

31) 邊利豐, <玄而不玄——論陶淵明詩歌的文體特徵>, 《新疆大學學報(哲學·人文社會科學版)》36:1, 2008, 126a쪽.

다. 그의 논의를 포조의 이 시와 연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팽택체’는, 이전에 시의 소재로 인식하지 않던 것, 예를 들면 飲酒와 採菊, 논밭 갈기와 김매기, 이웃과의 왕래 등 농촌의 일상생활과 경물을 시가에 도입함으로써 전원시의 소재를 개척하고 전형을 확립하였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詩化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역으로 시를 일상생활화한 것으로서, 중국시가에 농후한 전원생활의 숨결을 증가시킨 데 의의가 있다.³²⁾ 포조가 도연명의 <이거> 제2수와 <의고> 제7수에서 끌어온 소재는 바로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 정경이다.

둘째, ‘도팽택체’는 玄言詩 유행 말기와 山水詩 발생 이전에 출현하여, 현언시의 흔적을 분명히 지니면서도 현언시와는 전혀 다른 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玄而不玄(玄妙하기는 하되 玄虛하지는 않음)’이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팽택체’에서의 ‘玄理’는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의 추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명현상의 관찰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온 구체적 생명의 깨달음을 哲理로 승화하되, 시적인 이미지와 언어를 통하여 드러냄으로써 이성 정신보다는 시적 색채가 더 강하다.³³⁾ 도연명이 <구일한거> 시에서 술과 국화로 ‘근심’을 해소하고 ‘장생’을 바랄 수 있다고 한 것이 이러한 특징에 해당하는데, 포조는 자신의 시에서 이를 起句에 끌어 씌으로써 그것이 자기 시의 주제임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셋째, ‘도팽택체’의 언어적 특징은 ‘질박하면서도 직설적인(質直)’ ‘농가의 일상생활 언어(田家語)’를 즐겨 사용하는 점과 산문화한 구성으로 ‘느슨한 듯하면서도 奇趣가 있고’³⁴⁾ ‘산만한 것 같으면서도 장중함이 있으며’³⁵⁾ 때로는 虛辭와 虛字를 절묘하게 사용하는 등 ‘산문적 필치(詩中有文)’를 드러내고 있는 점이다.³⁶⁾ 포조의 <학도팽택체>의 전반적 구성과 시

32) 같은 논문, 126b쪽.

33) 같은 논문, 126b-129a쪽. 이치수, 앞의 책, <오희간이 해설> 385쪽.

34) 蘇軾, <書唐氏六家書後>, 《蘇東坡全集》, 中國書店, 1986, 305쪽: “觀陶彭澤詩, 初若散緩不收, 反復不已, 乃識其奇趣.”

35) 姜夔, <白石道人詩說>, 《歷代詩話》, 439下b쪽: “陶淵明, 天資既高, 趣詣又遠. 故其詩散而壯, 澹而腴.”

어에서 이런 점을 읽을 수 있으며, 나아가 포조 시를 전반적으로 보면, 산수시를 비롯한 일부 徒詩의 경우 華美한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악부시와 의고시 등에는 산문적 면모가 선명하여 ‘險俗’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IV. 結 語

오늘날 陶淵明은 시대를 초월한 대시인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생존 당시와 사후 상당히 오랜 기간 그와 그의 문학은 상당히 낮게 평가되었다. 顏延之와 沈約은 도연명의 인품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문학에 대해서는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평단에서도 마찬가지로 劉勰은 치지도외하였고 鍾嶸은 ‘中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조류에도 도연명 문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새로운 체재로 인정한 문인이 鮑照이다. 江淹과 蕭統 등이 模擬 또는 選錄을 통하여 도연명 문학에 대해 가치를 인정한 것은 모두 포조 이후의 일이다.

포조는 앞선 작가와 작품에서 다방면으로 모의를 한 시인으로 유명하지만, 당시의 주된 조류와 부합하지 않는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많은 문학적 자양분을 섭취하였다. 그 중에서도 도연명에 대해서는 그가 劉宋의 최초이자 유일한 ‘학습자’였다. 그의 <學陶彭澤體>시는 도연명의 <九日閒居>, <移居(2)>, <擬古(7)>에서 각각 2-4구씩 변용하여, 曠達, 飲酒, 恬靜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연명의 인생의 철리, 농촌의 일상생활 소재와 생활 태도를 담아낸, 현존 최초의 ‘學陶’ 시이다.

이 시의 중국 시가사상 더 중요한 의의는 도연명 시를 하나의 새로운 문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포조보다 후인으로 도연명의 시를 모의한 강염도 30수 전체의 제목은 ‘雜體詩’로, 도연명 시에 대해서는 ‘陶徵君田居’로만 표기하였는데, 포조는 ‘陶彭澤體’라고 명명을 하여 이 점을 詩題에서

36) 邊利豐, 앞의 논문, 129a-130b쪽.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취하고 구체적 생활을 통하여 터득한 인생의 철리를 형상적 표현으로 담아내며, 때로 구어적이고 산문적으로 작시하는 도연명 시의 특징을 ‘學陶彭澤體’에 비교적 온전히 담아내었다. 도연명이 이후 성·중당과 송대를 거쳐 비로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 ‘擬陶’, ‘學陶’, ‘和陶’의 기풍으로 발전하게 된 데에는 포조와 이 시가 기여한 바가 크다.

<參考文獻>

- 錢仲聯 增補集說校, 《鮑參軍集注》, 上海古籍出版社, 1980.
 팽철호 역해, 《도연명 시선》,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2.
 이치수 역주, 《도연명 전집》, 문학과 지성사, 2005.
 陶澍 注, 《陶靖節集注》, 四版; 世界書局, 1974.
 五臣并李善注 《文選》, 영인본; 正文社, 1983.
 丁福保 編, 《全漢三國晉南北朝詩》, 영인본; 藝文印書館, 1975.
 逯欽立 輯校, 《先秦漢魏晉南北朝詩》, 中華書局, 1984.
 王士禎 選, 方東樹 評, 《方東樹評古詩選》, 聯經出版社, 1975.
 蘇軾, 《蘇東坡全集》, 영인본; 中國書店, 1986.
 施元之 原註, 邵長蘅 刪補, 《施註蘇詩》, 『影印文淵閣四庫全書』; 臺灣商務印書館.
 何文煥 訂, 《歷代詩話》, 三版; 藝文印書館, 1974.
 王夫之 等 撰, 丁福保 編, 《清詩話》, 初版; 明倫出版社, 1971.
 李哲理 역주, 《역주 시품》, 창비, 2007.
 郁沅·張明高 編選, 《魏晉南北朝文論選》, 人民文學出版社, 1996.
 《宋書》, 영인본; 景仁文化社, 1976.
 《南齊書》, 영인본; 景仁文化社, 1976.
 宋永程, <鮑照의 前代 文人詩 受容>, 《中國學誌》 8, 1993.

- 宋永程, <鮑照詩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 宋永程, <鮑照의 <學劉公幹體>시>, 《中國語文學》 59, 2012.
- 崔雄赫, <陶淵明 田園詩 研究>, 韓國外大 博士學位論文, 1991.
- 金甫暉, <蘇軾“和陶詩”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 丁福林, <鮑照交遊考略(續)>, 《鎮江師專學報(社會科學版)》 1985:1.
- 付希亮·王玉嵐, <錢仲聯《鮑照年譜》中存在的幾個問題>, 《保定師專學報》 2000:1.
- 楊合林, <陶淵明詩在東晉南北朝的被讀解>, 《文藝理論研究》 2002:2.
- 劉文中, <劉宋時期的陶淵明>, 《哈爾濱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4:3, 2002.
- 王明輝, <陶淵明研究史論略>, 河北大學 文學博士學位論文, 2003.
- 張樹峰, <南宋陶淵明批評>, 內蒙古師範大學 碩士論文, 2007.
- 沈有珠, <南朝時期陶淵明的升格文運——南朝時期陶淵明接受史的研究>, 《貴陽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7:1.
- 吳侃民·周瑩, <論杜甫對陶淵明的接受>, 《萍鄉高等專科學校學報》 2007:4.
- 邊利豐, <玄而不玄——論陶淵明詩歌的文體特徵>, 《新疆大學學報(哲學·人文社會科學版)》 36:1, 2008.
- 夏正亮·黃建榮, <論王士禛對陶淵明的接受>, 《九江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0:1.
- 郭麗平, <劉宋時期的模擬詩創作與文學接受>, 《泉州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 28:5, 2010.
- 莫礪鋒, <顏延之《陶徵士誄》在陶淵明接受史上的地位>, 《學術月刊》 44:1, 2012.
- Kang-i Sun Chang, *Six Dynasties Poet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中文提要>

目前陶淵明(365~427)無疑是一代詩宗,可在其在世期間與死後頗長的一段時間,特別在南北朝時期,并沒得到其恰當的評價與接受。劉宋顏延之(384~456)的《陶徵士誄》是現存最早的評陶記錄。他在此文中將陶淵明視爲“南嶽之幽居者”,并讚賞其“心好異書,性樂酒德;簡棄煩禮,就成省曠”的品德。稍後,宋齊之際的沈約(441~513)首次爲他正式立傳,乃是《宋書·隱逸傳》中的陶淵明本傳,成爲後世陶淵明研究的重要資料。而兩人對陶淵明詩文價值的評價,或太簡單或無提及,顏延之僅說“文取指達”而已。

首位認識陶淵明文學的價值并且“學習”陶淵明詩文的人,乃是劉宋元嘉之詩人鮑照(414~466),他的《學陶彭澤體》一詩就是現存最早的“學陶”詩。全詩十句中之八句是從陶淵明的三首詩“學”來的:起頭兩句“長憂非生意,短願不須多”,是化用陶淵明《九日閒居》詩的起頭兩句“世短意恒多,斯人樂久生”,來表達全詩主題的,這就是陶淵明的“曠達”思想;其次兩句“但使尊酒滿,朋舊數相過”,是借用陶淵明《移居》其二的第三四兩句“過門更相呼,有酒斟酌之”,來提示陶淵明田園生活的一個細絕——“飲酒”;其次四句“秋風七八月,清露潤綺羅。提瑟當戶坐,歎息望天河”,就是化用陶淵明《擬古》其七的第三至六句“佳人美清夜,達曙酣且歌。歌竟長歎息,持此感人多”,來表現陶淵明“恬靜”的生活態度。

鮑照的《學陶彭澤體》詩,在陶淵明接受史上頗有重要的意義:首先,爲後世“擬陶”、“學陶”和“和陶”的風氣與傳統開其先河;其次,他將陶淵明詩命名爲“陶彭澤體”,將陶淵明的詩歌當作一種“新”的文體,這意味着鮑照對陶詩的獨特性已有充分認識。

주제어: 鮑照, 陶淵明, 《學陶彭澤體》, 曠達, 飲酒, 恬靜

